

“쌀값 안정 항구 대책 마련을” 커지는 목소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가격 예측·수급 안정 제도화 마련’ 촉구 성명 신정훈 의원 “정부 개입 상시 관리해야”...농민회 “올 추가 대책 필요”

농민과 농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영구적 쌀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확을 앞두고 폭락하는 쌀값 안정을 위해 45만t을 시장에서 격리키로 했지만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시장 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7일 성명을 내고 “급변 쌀값

폭락 사태를 교훈 삼아 농업인들이 쌀값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하고 보다 적극적인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수입쌀의 밥쌀용 방출을 자제하고 쌀 수급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도 “지금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법 제화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국민의 힘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또 쌀값 안정을 위해 어떤 대책이 도움이 되는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일에 지금 당장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남도당도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농민들이 2015년부터 주장한 밥 한 공

기(90g) 가격이 300원은 되도록 나락을 매입해야 하고, 수입쌀 방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수매제를 통해 쌀 최저가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농민들이 가격결정권을 갖게 되고, 식량 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도 지난 26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가 올해 수확기 구곡과 신곡 총 90만t의 나락을 격리한다고 발표했지만, 급조된 대책”이라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권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시장 안정 조치 마련을 추진 중이다. 신정훈 의원은 “쌀값이 정상화된 상태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쌀 목표가격 제도입과 정부의 적극적인 가격관리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0~12월 수확하는 올해 신곡과 지난해 수확한 구곡을 합쳐 총 45만t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말린 우유팩, 화장지로 바꿔드려요” 광주 북구 벽산블루밍 3단지 부녀회원들이 단지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탄소중립 실천 일환으로 수거한 우유팩을 건조 시키고있다. 부녀회는 씻어 말려 배출한 입주민에게는 화장지를 교환 제공한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합평군의의회, 광주·전남 최초 의정비 인상

올해보다 28만5000원 늘어...타 시·군의의회 영향 전망

합평군의의회가 광주·전남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의정비를 인상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 처음으로 인상을 결정한데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을 (1.4%)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인상 여부를 두고 고민중인 다른 지방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합평군 의정비심의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군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올해 1.4%)만큼 올리기로 결정했다. 합평군의의회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쓰이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 대가인 월정수당으로 나뉘는데, 월별로 각 110만원(연간 1320만원), 166만2970원(연간 1995

만원)이다. 내년도 합평군의원들의 의정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정활동비이다. 1.4% 인상이 적용된 월정수당(연간 2023만5000원)을 더하면 3343만5000원으로, 올해(3315만원)보다 28만5000원 많다. 합평군의의회 의정비 수준은 전남 22개 시·군의의회 중 20번째다. 합평군의의회 의정비 인상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다른 시·군의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경기 침체 상황에서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면 무턱대고 올리기가 쉽지 않다. 광양시의회와 광주시의회(4038만원)가 22개 시·군 중 가장 많지만 올해 재정 자립도는 2018년

(38.47%)에 비해 무려 13.17%가 떨어졌고 나주시도 전남 시·군 의회 중 두번째로 의정비(3965만원)가 많지만 재정자립도는 4년 전보다 6.88% 하락했다. 전남 22개 시·군 의회 중 의정비가 가장 낮은 곡성군의의회(올해 3194만원)도 4년 전보다 8.36%나 떨어진 재정자립도(8.3%)를 고려하면 높은 인상을 요구하기도 부담스럽다. 전남도의회도 이같은 점을 들어 5328만(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3528만원)인 올해 의정비 인상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광역지방의회 가운데 전국 평균(5858만원)보다 낮고 17개 시·도 중 세종 다음으로 의정비가 적지만 재정자립도도 17개 시·도 중 16위라는 점에서 마냥 높은 인상을 고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전남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21일까지 의정비를 결정, 도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역대 최고’ 20억 달러 투자 유치

김영록 지사 美 순방 성과...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 청신호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첫 해외 순방지로 정한 미국에서 전남 역대 가장 큰 규모인 20억 달러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 이에 더해 LA한인축제와 남도장터US 물 개장으로 농수산물 수출 확대, 지자체 첫 단독 관광설명회를 통한 관광객 유치 등을 미국 순방의 성과로 꼽았다. 김 지사는 27일 오후 도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답회를 열어 9일간의 미국 순방 성과와 도정 현안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미국 순방 기간 다이오벤체스와 한국 아이아피(EIP) 자산운용사의 한-미 합작법인 인 더그린코리아(TGK)와 20억달러(한화 2조 6000억원)를 투자해 2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역대 최대 규모의 외자 유치는 전남이 안정적 전력 계통을 확보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실제로 브래드 하딘 더그린코리아-다이오벤체스 대표가 1년 전 ‘솔라시도’를 방문해 안정적 전력계통망에 “인상적”이라고 극찬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력해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구비하는 등

데이터센터 활성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데이터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할 것”이라며 “또한 지역 대학에 관련 학과를 신설해 인력을 양성토록 하는 등 지역 청년들이 관련 꿈을 키우고 일자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협약은 포스코리튬솔루션이 울산산단에 7600억원을 투자해 연간 4만3000t 규모의 수산화리튬 생산공장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었다. LA한인축제와 남도장터US 물 개장을 통해 맛의 고장 전남 농수산식품의 우수성도 뽐냈다. 한인축회에 출품한 보리굴비와 레인보우팜, 유기농 유자주스 등은 2-4일만에 일찌감치 완판돼 항의 아닌 항의도 들었다는 후문이다. 지자체 최초로 개설한 남도장터US 물의 경우 유자와 오징어 크리스피, 김, 고추장 등 인기상품을 비롯한 66개사 182개 제품을 판매한다. 전남 방문의 해 관광 설명회에서는 오는 10월 850여 명의 미주 관광객을 유치했고, 미국, 일본, 호주,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 15개국 67명의 글로벌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를 발대했다. 3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이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5·18 구묘역에 추모관 신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변경 승인...市, 2500기 수용 납골시설 건립

민중화 운동 인사들이 안장된 광주 5·18 구묘역에 추모관이 신설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제 1·2 시립묘지공원, 화장장 확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제1 시립묘지공원 건축 연면적은 500여㎡ 늘어난 1600㎡, 제2 시립묘지공원 건축 연면적은 6000㎡ 증가한 1만700㎡, 화장장은 1600여㎡ 증가한 5800여㎡로 변경됐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제1 시립묘지공원 3묘역에 추모관을 짓기로 했다. 연면적 1000㎡, 지상 2층,

25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시설로 5·18 유공자, 민족민주열사 등이 이용 대상이다. 3묘역은 구묘역, 망월묘역, 민족민주열사 묘역으로 불리는 곳으로 저항시인 김남주, 이한열 열사, 백남기 농민 등이 묻혀있다. 매장 공간이 부족해 봉안형 형태의 추모관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2024년 완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제2 시립묘지공원에 수목장 시설이나 추모관을 증설하고, 화장장 처리 용량도 늘릴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망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골프 이용자 할인 특가 (원)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30점 이상 (10%) 180,000 40점 이상 (15%) 170,000 50점 이상 (2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대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